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03년 4월

전망과 정책과제

제1장 국내경제동향	5
제2장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35
제3장 국내경제전망	47
제4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55

부록

주요경제통계	59
--------------	----

한국경제연구원

편집위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원

허찬국

배상근

김창배

서준석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제1장 국내경제동향

1. 실물부문
2. 대외거래부문
3. 물가부문
4. 통화·금융부문

제2장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1. 성장
2. 원자재가격
3. 국제금리 및 환율

제3장 국내경제전망

1. 실물부문
2. 물가부문
3. 대외거래부문
4. 금융부문

제4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제 1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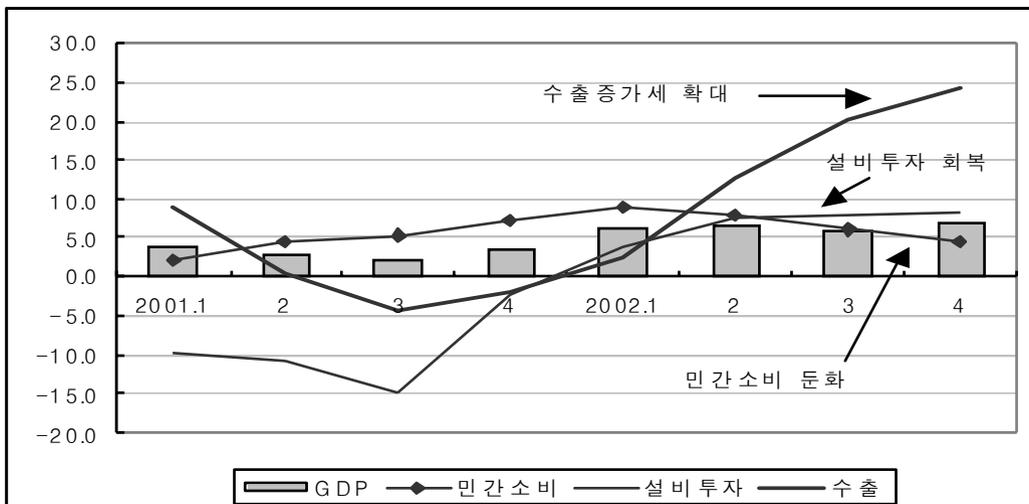
국내경제동향

1. 실물부문

생산 : 금년 들어 증가세 둔화 조짐

- 2002년 우리경제는 민간소비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세 확대와 설비투자 회복에 힘입어 연간 6.3%의 성장률을 기록

단위 :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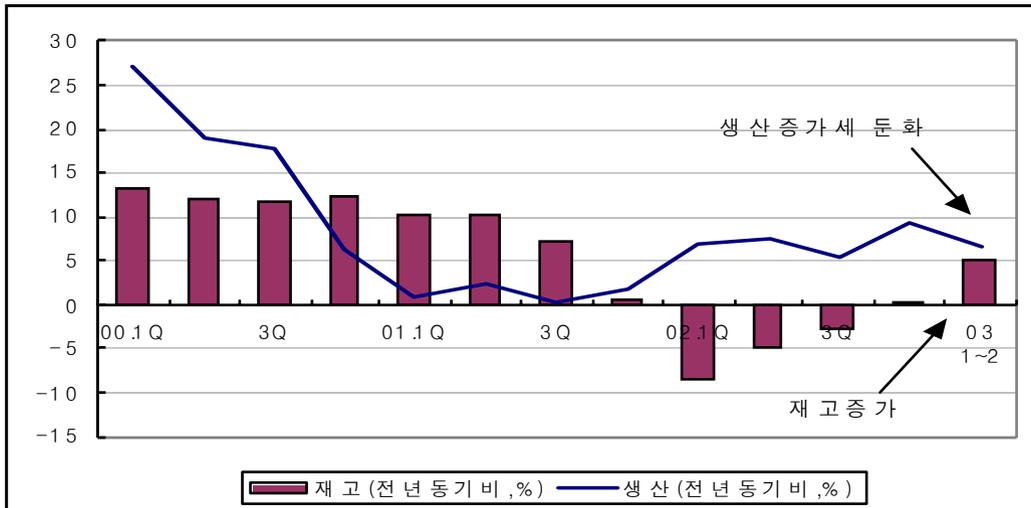


- GDP(전년동기비, %) : 6.2%('02 1/4) ⇒ 6.6%(2/4) ⇒ 5.8%(3/4) ⇒ 6.8%(4/4)

전망과 정책과제

■ 그러나 2003년 들어 이라크사태와 북핵문제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생산증가율이 둔화되고 재고가 증가하는 등 생산활동이 부진

- 산업생산(전년동기비, %) : 5.3%('02 3/4) ⇒ 9.5%(4/4) ⇒ 6.6%('03 1~2월)
- 재고(전년동기비, %) : -2.7%('02 3/4) ⇒ 0.3%(4/4) ⇒ 5.0%('03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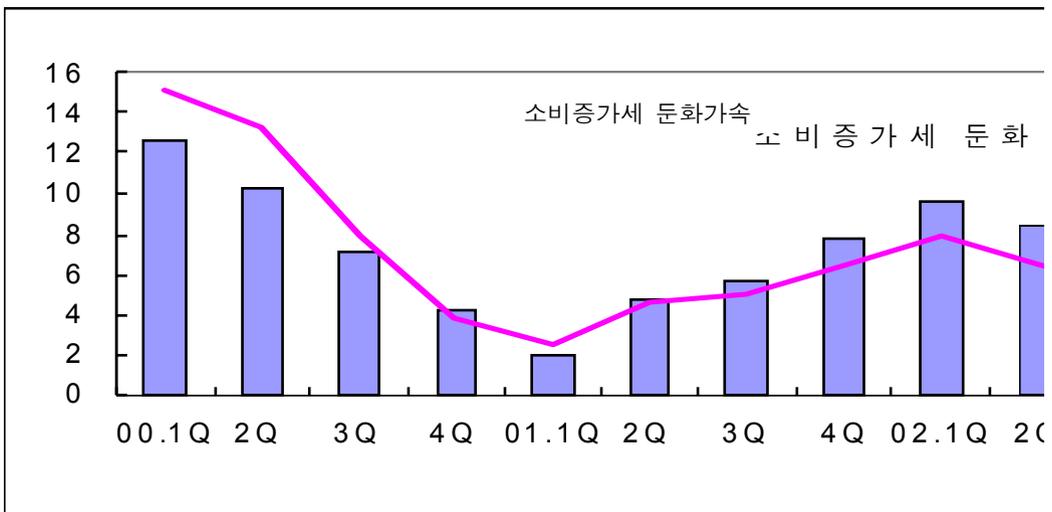


소비 : 증가세 크게 둔화

■ 지난 해 2/4분기 이후의 소비 둔화세가 금년 들어 더욱 빨라지는 모습

- 민간소비(전년동기비, %) : 8.9%('02 1/4) ⇒ 7.9%(2/4) ⇒ 6.2%(3/4) ⇒ 4.3%(4/4)
- 도·소매판매(전년동기비, %) : 5.1%('02 3/4) ⇒ 4.4%(4/4) ⇒ 1.4%('03 1~2월)

단위 :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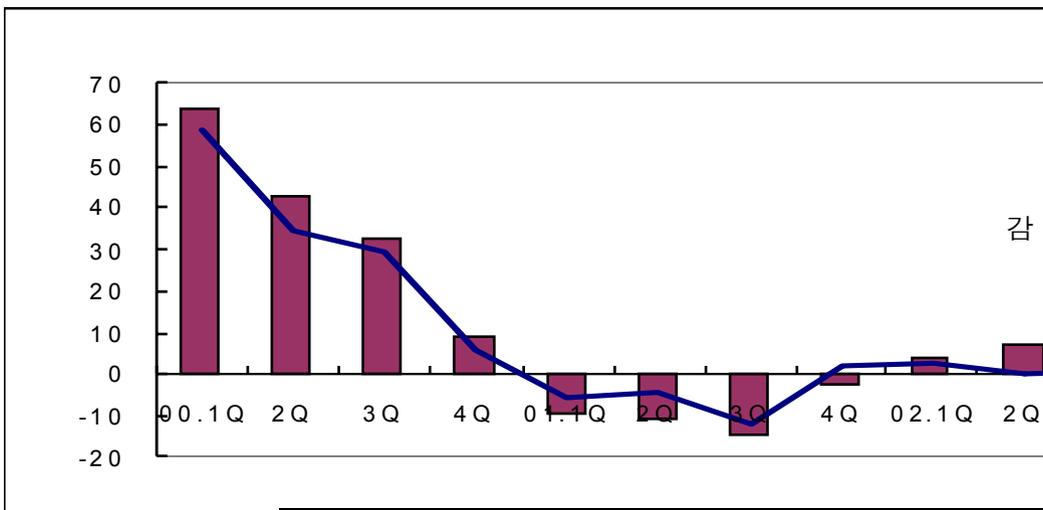


설비투자 : 금년 들어 감소세로 반전

■ 지난 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설비투자가 금년 들어 2개월 연속 감소세

- 설비투자(전년동기비, %) : 3.8%('02 1/4) ⇒ 7.5%(2/4) ⇒ 7.8%(3/4) ⇒ 8.2%(4/4)
- 설비투자추계(전년동기비, %) : 0.4%('02 3/4) ⇒ 3.1%(4/4) ⇒ -5.8%('03 1~2월)

단위 :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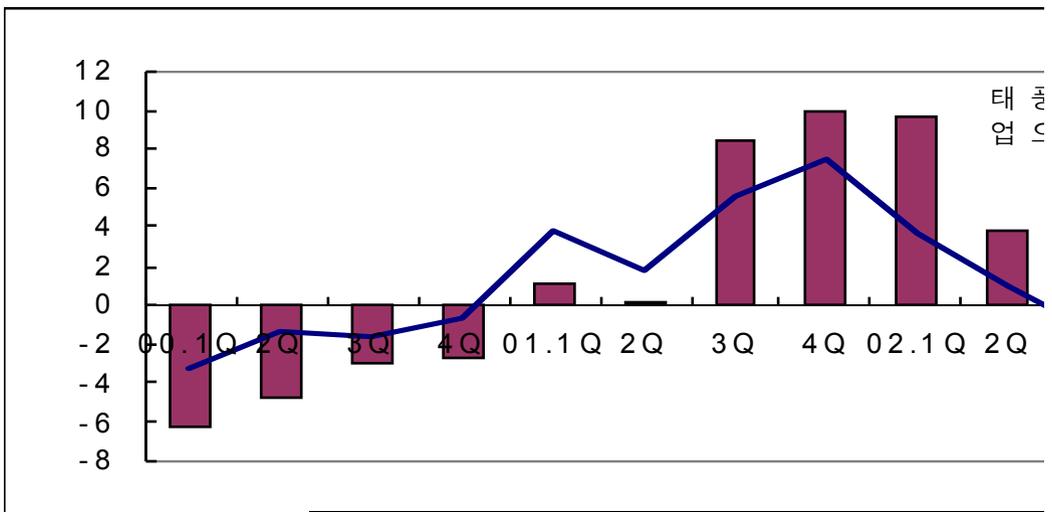


건설투자 : 지난 해 4/4분기 이후 증가세

■ 태풍피해 복구사업 본격화의 영향으로 2002년 4/4분기 이후 다시 증가세

- 건설투자(전년동기비, %) : 9.7%('02 1/4) ⇒ 3.8%(2/4) ⇒ -4.6%(3/4) ⇒ 6.0%(4/4)
- 건설기성액(전년동기비, %) : -2.8%('02 3/4) ⇒ 8.0%(4/4) ⇒ 14.7%('03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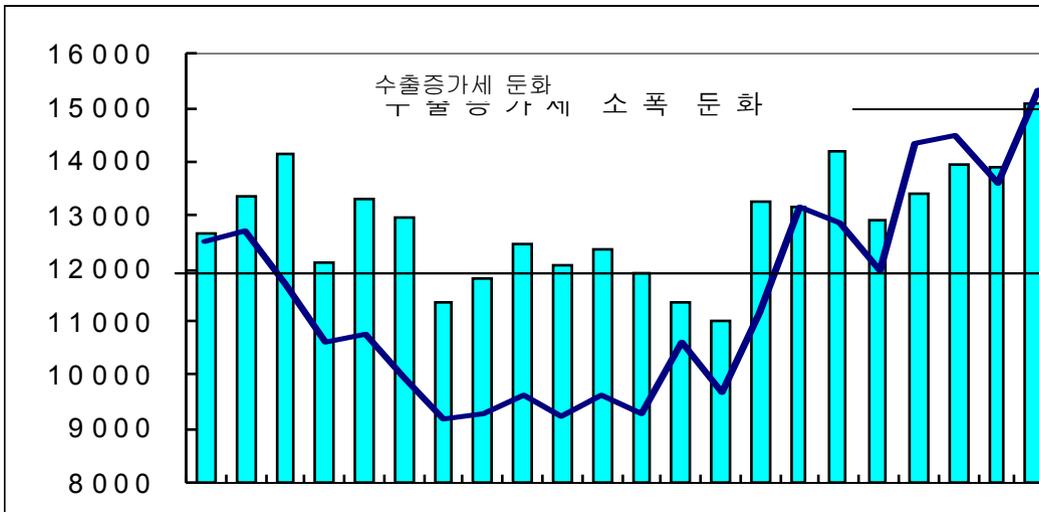
단위 : 전년동기비(%)



2. 대외거래부문

수출 : 증가세 둔화

- 수출은 여전히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증가세는 둔화
 - 수출증가율 : 25.8%(03 1월) ⇒ 21.9%(2월) ⇒ 17.5%(3월)



■ 주요 품목별로는 무선통신기기와 자동차의 호조가 지속되는 반면 반도체와 컴퓨터의 증가세는 크게 둔화

- 무선통신기기는 휴대폰 수출의 호조세가 지속적으로, 자동차는 수출차종의 고가화와 국내특소세 환원에 따른 업계의 수출증대 노력으로 높은 증가세 지속
- 반도체는 D램 주력제품인 DDR제품의 가격이 점차 하락하면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컴퓨터의 경우는 수요부진과 주요생산업체의 생산라인 해외이전 추진으로 감소

* DDR256M(\$/개) : 8.12('02 11월) ⇒6.46(12월) ⇒5.69('03 1월) ⇒3.40(2월) ⇒3.25(3월)

단위 : 전년동기비(%)

	2002년			2003년		
	3/4	4/4	연간	1월	2월	3월(추정)
반도체	53.6	57.7	16.6	39.6	2.0	-7.3
자동차	10.9	5.1	32.2	16.3	35.6	18.5
무선통신기기	35.6	41.4	38.2	41.2	60.3	44.8
컴퓨터	26.8	7.2	15.1	-0.2	1.3	-1.0
선 박	42.3	37.2	9.7	92.4	-22.4	5.5

자 료 : 산업자원부

■ 지역별로는 중국, EU, 일본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큰 폭의 증가세가 지속된 반면 미국과 아세안시장에서는 증가세 둔화

전망과 정책과제

- 對中수출은 50%를 상회하는 급신장세를 지속
- 對美수출은 미-이라크 전쟁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3월중에는 감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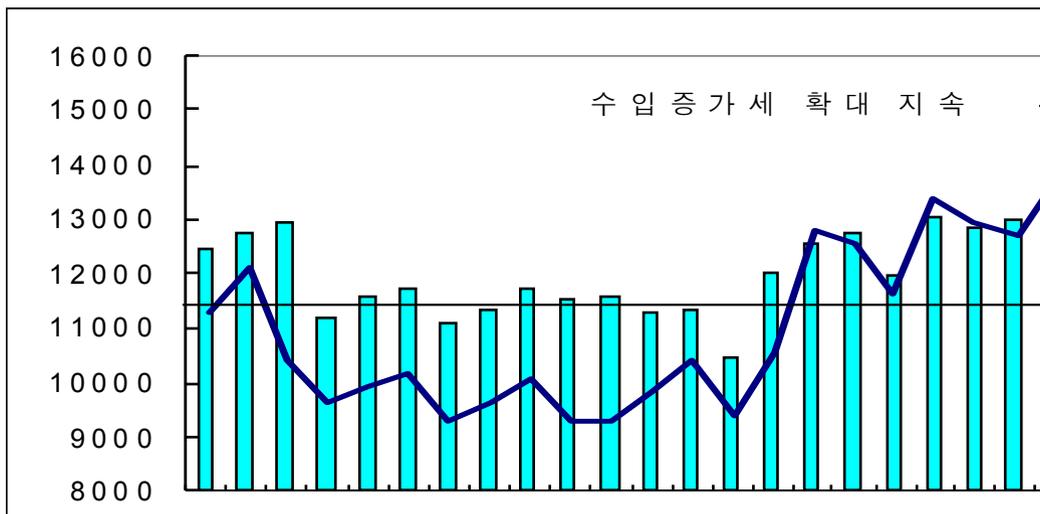
단위 : 전년동기비(%)

	2002년			2003년		
	3/4	4/4	연간	1월	2월	3.1~20
미국	43	184	50	4.8	5.1	-2.6
EU	15.9	39.3	10.5	26.4	38.9	19.1
일본	32	15.6	-8.3	31.1	14.9	11.5
아세안	17.2	17.9	11.8	19.1	-8.5	6.6
중국	35.6	64.2	30.6	55.7	81.3	53.7

자 료 : 산업자원부

수입 : 큰 폭의 증가세 지속

- 수입은 1/4분기중 30%대의 증가율을 보이며 증가세가 확대
 - 수입증가율 : 27.3%('03 1월) ⇒ 31.9%(2월) ⇒ 32.9%(3월)
 - 일평균수입액 : 6.1억 달러('03 1월) ⇒ 6.3억 달러(2월) ⇒ 6.7억 달러(3월)



- 수입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수입금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
 - 도입단가증가율 : 50.7%('03 1월) ⇒ 58.2%(2월) ⇒ 49.8%(3월)
 - 원유수입증가율 : 46.6%('03 1월) ⇒ 37.2%(2월) ⇒ 60.9%(3월)

■ 용도별 수입동향

- 원자재수입은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
- 자본재수입은 반도체와 반도체제조장비 그리고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
- 소비재수입은 유가 및 환율 인상의 영향으로 증가세 둔화

단위 : 전년동기비(%)

	2002년					2003년		
	1월	2월	3월	11월	12월	1월	2월	31~20
원자재	-10.2	-21.3	-9.9	17.5	25.2	30.4	27.0	42.1
자본재	-17.1	-20.6	-9.5	24.4	29.3	22.8	39.9	35.9
소비재	32.1	19.9	13.7	22.9	27.4	15.0	22.4	21.3

자 료 : 산업자원부

경상수지 : 상품수지 흑자 축소와 서비스수지적자 확대로
12월 이후 적자 지속

-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상품수지의 흑자규모가 축소되면서 경상수지가 지난해 12월 이후 적자를 지속
 - 상품수지는 수입증가세가 수출증가세를 크게 상회하면서 흑자규모가 축소
 -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와 기타서비스(특허권사용료, 사업서비스 등)의 만성적인 적자 구조로 적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

단위 : 억 달러

	2002년	2003년		
	1~2월	1월	2월	1~2월
여행수지	-5.2	-5.9	-3.2	-9.1
수입	7.8	3.8	3.9	7.7
지급	13.0	9.7	7.1	16.8
특허권사용료수지	-4.0	-1.8	-3.3	-5.1
수입	1.3	0.5	1.2	1.7
지급	5.3	2.3	4.5	6.8
사업서비스수지	-7.2	-6.3	-4.3	-10.6
수입	9.4	4.9	4.9	9.9
지급	16.6	11.2	9.2	20.4

자 료 : 한국은행

- 자본수지는 증권투자자금의 순유출 등의 영향으로 2월중 적자

단위 :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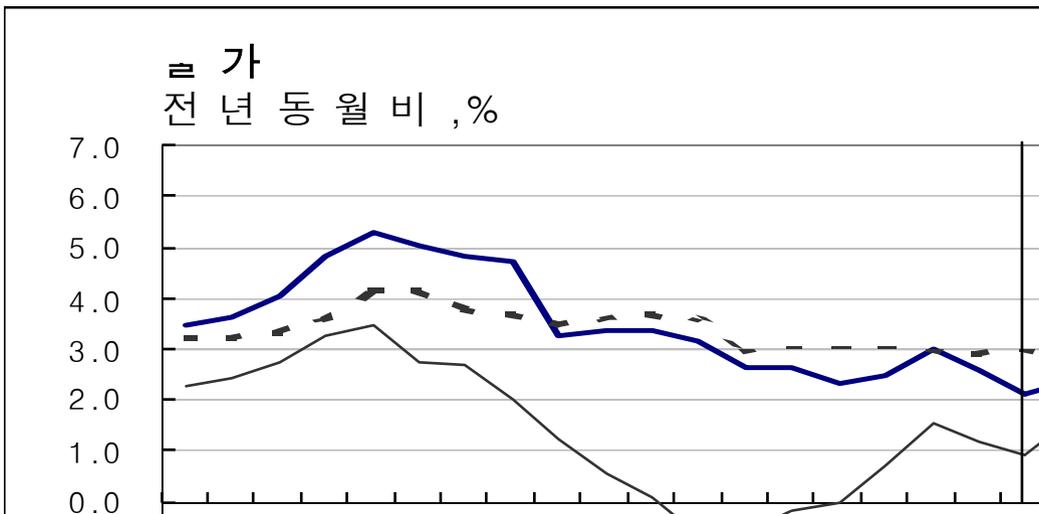
	2002년					2003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1~2월
경상수지	15.9	16.0	9.3	19.7	60.9	-3.5	-0.2	-3.7
상품수지	31.2	43.7	28.3	38.7	141.8	8.6	5.9	14.5
서비스수지	-15.0	-16.0	-22.2	-21.4	-74.6	-11.9	-8.9	-20.8
소득수지	0.2	-8.8	6.4	6.6	4.5	2.8	4.6	7.4
경상이전수지	-0.5	-2.9	-3.2	-4.2	-10.8	-3.0	-1.8	-4.8
자본수지	7.4	-3.7	23.8	-12.3	15.2	9.1	-0.8	8.3

자 료 : 한국은행

3. 물가부문

고유가의 영향으로 물가 오름세 확대

- 지난 해 8월 이후의 물가 오름세가 금년 들어서 더욱 확대
 - 소비자물가의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금년 3월에는 4%를 넘어섰으며 생산자물가는 금년 들어 3개월 연속 5%대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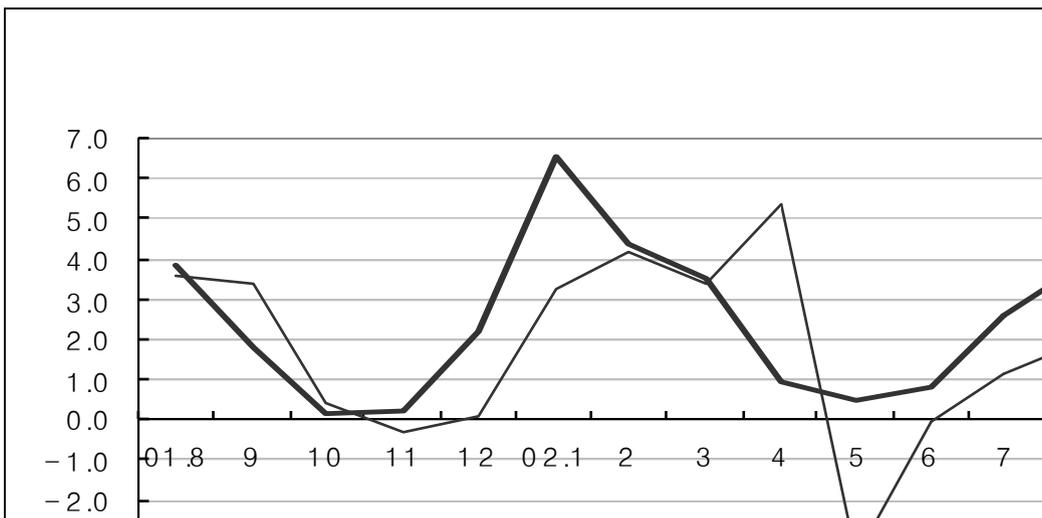
- 이는 국제유가의 상승과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의 영향

단위 : 억 달러

	2002년		2003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원유도입단가(\$/BBL)	27.15	25.70	28.40	31.07	31.90
증가율(전년동월비, %)	28.9	34.0	50.7	58.2	49.8
환율(원/달러, 평균)	1,211.9	1,208.9	1,179.5	1,191.3	1,233.7
수입물가(전년동월비, %)	0.1	2.9	2.5	5.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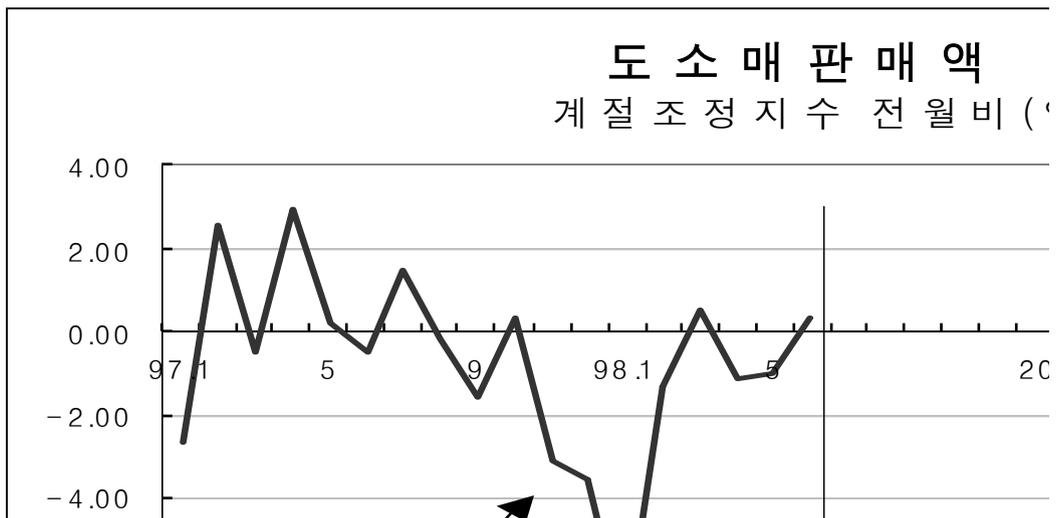
부동산가격 : 2월 들어 소폭 상승세

- 지난 해 정부의 투기 억제정책이후 상승세가 둔화되던 부동산 가격이 최근 봄철 이사철 수요로 소폭 상승세로 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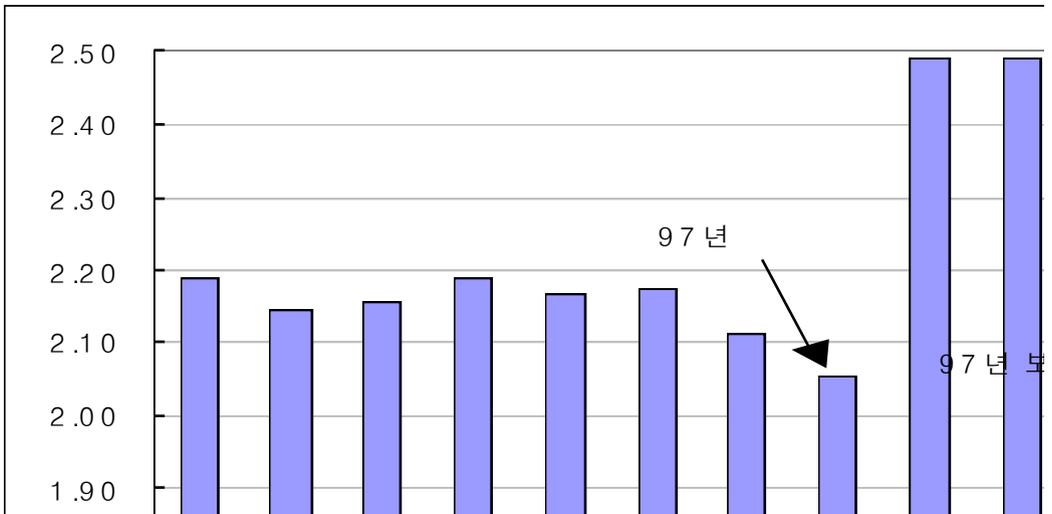


실물경기 종합 의견 : 소비와 투자의 위축은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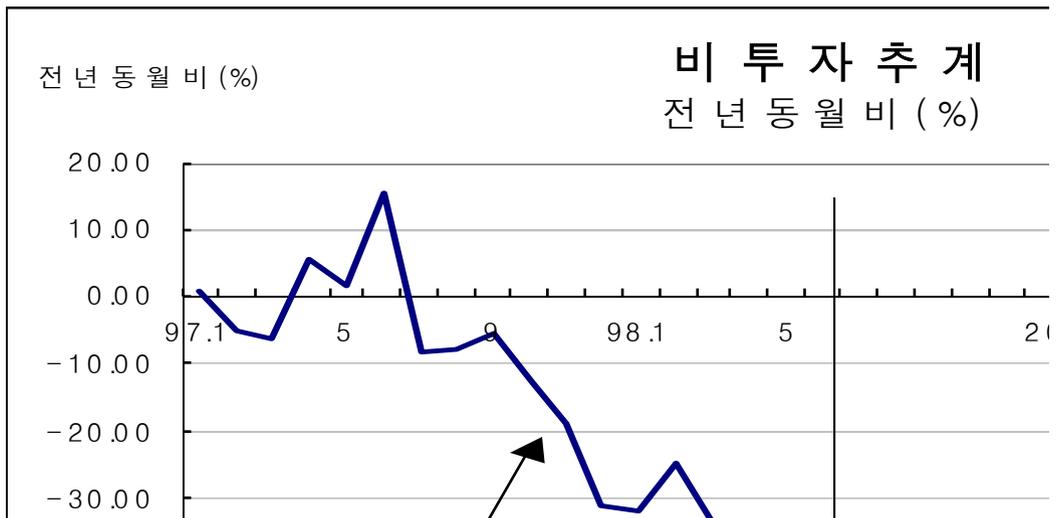
- 이라크사태, 북핵문제 등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경기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소비의 위축은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상황
- 금년 2월의 도·소매판매액이 감소율이 외환위기때 보다 더 크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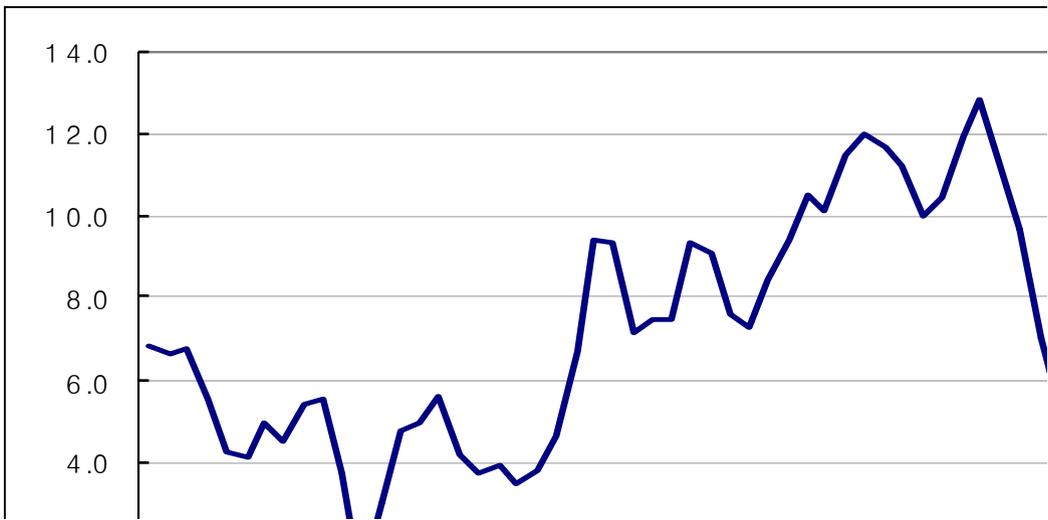
- 개인부문의 금융자산/금융부채 비율은 외환위기 때의 수준보다 더 낮은 데다 이자율이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부문의 구매력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욱 위축된 것으로 보임.



- 설비투자의 위축으로 제조업 생산능력 증가가 거의 정체된 수준
 - 2001년 이후 설비투자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의 투자감소는 외환위기 때만큼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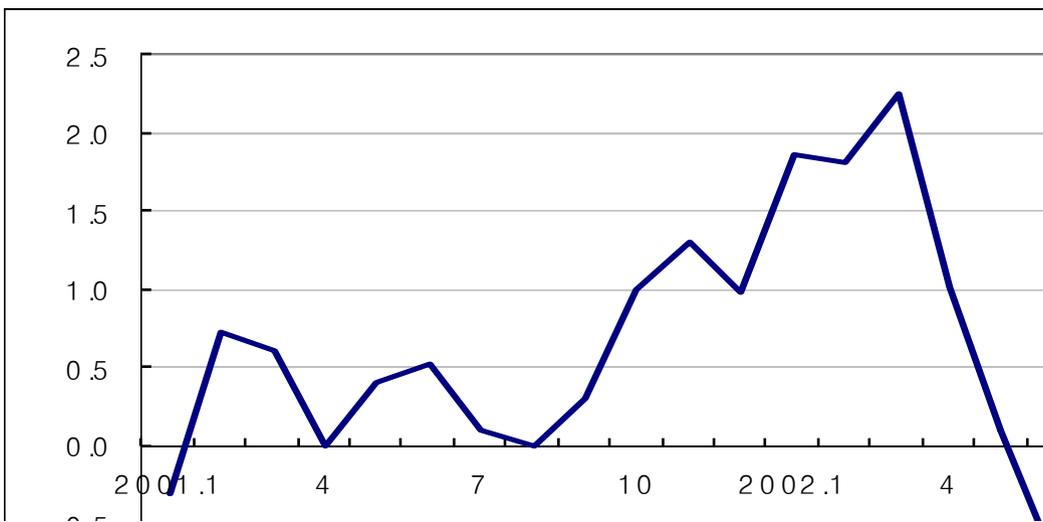


- 이로 인해 제조업의 생산능력증가는 지난 해 하반기 이후 2%대로 크게 둔화되었으며 향후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 제조업생산능력지수 : 사업체의 주어진 조건(설비, 노동력, 사내지정제조업시간 및 일수, 설비효율 등)하에서 정상 가동시 최대 생산량

- 더구나 금년 들어 연속 2개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선행지수는 당분간 경기 위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4. 통화 · 금융부문

최근 통화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

- 작년 3월부터 12~13%대를 지속하던 M3 증가율이 최근 가계대출 둔화추세 지속 등으로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한 상황
- 작년 4월 이후 M1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M2는 작년 말에 다소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으나 금년에 들어서 증가세가 둔화

단위 : 평잔기준, 전년동기대비(%)

	2001년	2002년													2003년	
	연 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 간	1월	2월
(신)M1	18.0	25.6	28.1	26.8	28.9	28.4	26.4	22.6	20.3	18.0	16.9	16.1	15.2	22.5	13.7	9.5
(신)M2	6.9	8.5	8.8	11.1	12.3	12.4	12.5	11.5	10.7	10.6	11.6	13.3	14.1	11.5	13.9	13.3
M3	9.6	11.6	11.9	12.9	13.7	13.7	13.5	13.0	12.4	12.4	12.5	13.7	13.3	12.9	13.1	12.6

자 료 : 한국은행

자금사정 : 기업 및 가계 대출 증가세와 채권발행여건 악화

- 최근 카드사의 유동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카드사에 대한 대출을 중심으로 은행권의 대기업대출이 증가
 - 중소기업대출도 법인세 납부 등의 계절적 요인과 은행권의 대출확대 노력 등에 힘입어 금년 3월 월중 사상 최대 규모인 6.1조 원 증가
- 가계대출은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억제대책의 시행으로 작년 2/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폭 둔화
 - 그러나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이나 이로 인한 가계 및 신용카드회사 부실화 등의 불안 요인 내재

단위 : 증감액, 조원

	2002년					2003년			
	연중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월	2월	3월	1/4분기
기업대출	37.2	12.6	11.5	8.2	4.9	6.8	1.5	8.2	16.4
(대기업대출)	0.1	3.3	-1.7	-0.3	-1.2	0.8	-1.0	2.0	1.8
(중소기업대출)	37.1	9.3	13.2	8.5	6.1	6.0	2.5	6.1	14.7
가계대출	61.6	17.4	17.6	16.0	10.5	-0.3	2.7	2.5	4.9
(주택담보대출)	46.2	12.2	12.9	11.7	9.4	0.7	0.8	1.0	2.5

자 료 : 한국은행

- 회사채는 장기자금수요의 부진과 함께 최근 SK글로벌 분식회계 이후 회사채 프리미엄(회사채 유통수익률 - 국고채 유통수익률)의 상승 등에 따른 회사채 발행여건 악화로 인해 작년 내내 이어졌던 순상환 기조가 금년에도 지속
- 3월 CP발행잔액도 투신사의 MMF이나 은행특정금전신탁 등의 수신 감소로 인한 CP 발행 부진으로 4.5조 원 감소

단위 : 기간중증감, 조원

	2002년					2003년			
	연중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월	2월	3월	1/4분기
회사채발행(순) ¹⁾	-8.1	-3.2	-3.6	-0.8	-0.4	-0.2	-0.6	-0.3	-1.0
CP발행(순) ²⁾	10.9	4.7	3.4	2.5	0.3	4.7	1.6	-4.5	1.8

주 : 1) 공모회사채 기준, ABS 및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채무조정기업의 만기도래분 제외. 단 Primary-CBO 및 산은신속인수분 포함

2)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기업 기준, 금융기관 발행분 및 채무조정기업 출자 전환분 제외

자 료 : 한국은행

전국어음부도율 낮은 수준 유지

- 금년 1월 0.04%까지 하락하였던 전국어음부도율이 2월에는 0.08%로 크게 상승했으나 2000년과 2001년 연간 0.26%와 0.23%에 비해 낮은 수준 유지
 - 이는 기 부도기업의 회사채 부도금액 증가와 설 연휴 교환관련 부도금액 이월 등에 기인(작년 2월과 3월 전국어음부도율은 0.09%와 0.11%임.)
 - 월별 전국 부도업체수는 1월중 411개에서 2월중에는 384개로 감소하였으나 신설법인수가 감소하여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이 2월중에는 17.7배를 기록

단위 : %, 개, 배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연간	연간	1/4	2/4	3/4	4/4	1월	2월
어음부도율(전국) ¹⁾	0.26	0.23	0.08	0.05	0.05	0.05	0.04	0.08
서울	0.34	0.23	0.08	0.05	0.04	0.04	0.03	0.07
부도업체수(전국)	6,718	5,277	1,000	977	1,077	1,190	411	384
서울	2,559	1,997	375	382	412	454	180	125
신설법인/부도법인 ²⁾	14.8	16.9	23.3	21.7	17.7	16.9	16.8	17.7

주 : 1)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2)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등 8대 도시 기준임.

자 료 : 한국은행

SK글로벌의 분식회계로 인한 투신사 환매자금이 은행권으로 유입

- 은행 수신이 통화공급의 증가, 설연휴자금 환류 등에 따라 2월에 증가세로 전환된 후, 3월에는 수시입출식 예금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
 - 이는 SK글로벌의 분식회계와 카드채 부실화 우려 등에 따라 투신사 환매자금 등이 은행권에 유입된 데 기인
- 연초 증가세를 나타내던 MMF가 3월에 들어 20.3조 원 감소하여 투신사 수신은 3월 중 24.6조 원 감소

단위 : 억 원, 증감액 기준

전망과 정책과제

	2002년		2003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3월말 잔액
은행계정	83,292	-22,058	-68,576	24,216	128,496	5,432,512
실제요구불	-3,087	43,599	-48,847	11,608	-17,099	382,234
저축성예금	50,383	-22,168	-20,527	-3,863	136,280	4,522,805
(정기적금)	23,152	-34,444	14,763	11,843	2,297	2,429,539
(수시입출식)	27,121	9,819	-39,169	-17,902	135,969	1,461,378
<MMDA>	18,643	-14,276	-23,514	-1,270	123,032	543,236
CD+RP+표지어 음	34,996	-43,489	798	16,471	9,315	527,473
금전신탁	-2,191	-3,532	-9,698	3,380	-16,135	681,276
추가금전	-417	-2,136	783	982	-606	37,396
신노후연금	-4,498	-2,911	-2,157	-1,077	-1,743	26,054
단위금전	-1,561	-1,841	-849	-542	-1,284	23,178
신중적립	-3,112	-2,133	-2,796	-1,526	-1,575	57,223
특정금전	11,841	5,024	-1,345	10,461	-5,985	325,252
기타	-4,444	465	-3,334	-4,918	-4,942	212,163
투신사	25,696	-43,000	108,798	57,401	-246,817	1,556,288
단기채권투자신탁	19,397	709	35,718	20,057	-28,738	387,278
장기채권투자신탁	2,971	-4,609	1,597	237	-5,155	235,697
MMF	30,309	-17,981	73,352	33,146	-202,882	396,002
주식투자신탁	-1,772	-2,642	1,155	3,825	8,580	106,752
혼합투자신탁	-25,209	-18,477	-3,024	136	-18,622	430,559
종금사	1,267	-16,872	16,859	4,617	1,443	110,361
체신예금	4,924	9,874	13,933	165	3,787	325,390
증권사고객예탁 금	1,612	-10,953	-3,479	2,020	30,233	110,180
주식형뮤추얼펀 드	-773	-691	-716	2,227	-37	67,180

자료 : 한국은행

■ 금년 1월 중순 이후 외국인투자자는 주식 순매도 지속

- 이는 SK글로벌의 분식회계나 카드채 부실화 우려 등에 따른 우리 기업 및 금융 구조 조정에 대한 의구심, 미·이라크 전쟁 이후 다시금 제기될 북핵문제 등과 관련된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 국내경기전망 악화 등에 기인

단위 : 억 원

	2002년						2003년		
	1월	2월	3월	상반기	하반기	연중	1월	2월	3월
주식순매수 ¹⁾	3,230	-2,572	-11,344	-36,307	9,193	-27,114	2,827	-7,346	-8,166

주 : 1) 거래소+코스닥

자 료 : 한국은행

저금리 기조와 향후 경기전망 불확실성에서 장·단기 금리 격차 축소

■ 작년 5월 이후 한은의 지속적인 콜금리 목표 동결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 등의 장기시장금리가 작년 12월 중순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여 4%대로 하락

- 이는 미·이라크 전쟁과 북핵문제 등의 지정학적 불안요인과 함께, 향후 경제전망 불확실성, 장기채권의 발행 축소 등에 기인
- 다만, 3월 11일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 이후 회사채나 국고채 등의 장기시장금리와 CD·CP 유통수익률 등의 단기시장금리가 리스크 프리미엄의 상승으로 일시적 상승

- 한편,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회사채 프리미엄이 다소 상승
- 따라서 최근 장·단기 금리의 격차(국고채금리-콜금리)가 축소되어 지속되고 있음.

단위 : 연리(%)

	2000	2001	2002년				2003년			
	년	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9일
콜(익일)(A)	6.01	4.00	4.27	4.28	4.27	4.52	4.34	4.26	4.27	4.22
CD(91일)	6.87	4.86	4.86	4.94	4.90	4.90	4.55	4.53	4.70	4.69
CP(91일)	7.26	5.07	4.95	5.07	5.03	5.03	4.68	4.64	5.27	5.27
국고채(3년)(B)	6.70	5.91	5.30	5.33	5.35	5.11	4.77	4.60	4.62	4.68
회사채(3년)(C)	8.13	7.04	6.00	5.95	5.96	5.68	5.29	5.14	5.38	5.47
B-A(%P)	0.69	1.91	1.03	1.05	1.08	0.59	0.43	0.34	0.35	0.46
C-A(%P)	2.12	3.04	1.73	1.67	1.69	1.16	0.95	0.88	1.11	1.25

주 : 월말기준임.

자 료 : 한국은행, 일일금융시장 동향

최근 대내외 불안요인으로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 하락세 지속

- 엔/달러 환율이 그 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동조추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년 2월초 부터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의 하락으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 시현
 - 이는 북핵문제, 미·이라크 전쟁 등과 같은 지정학적 불안요인으로 국제정세가 혼미한 가운데 SK의 분식회계문제와 향후 경제전망 악화 등으로 시장불안심리가 가중되는데 기인
 - ‘안전한 자산으로의 이동’ 현상이 나타나, 3월 25일 현재 거주자 외화예금이 142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 경신

	2001년	2002년				2003년			
	12월말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1월말	2월말	3월말	4월 9일
원/달러 ¹⁾	1,313.5	1,325.90	1,201.30	1,227.80	1,186.20	1,170.10	1,193.70	1,254.60	1,249.80
)	(3.1)	(-0.9)	(+9.3)	(+7.0)	(+10.7)	(+1.4)	(-2.0)	(-5.1)	(+2.6)
엔/달러 ²⁾	131.64	132.67	119.34	121.90	118.68	119.00	118.11	117.99	119.88
)	(6.6)	(-1.0)	(+11.2)	(-2.1)	(+2.7)	(-0.3)	(+1.1)	(+0.1)	(-0.6)
원/100엔 ³⁾	1,009.4	998.95	1,004.51	988.37	1,012.87	987.06	1,008.54	1,044.65	1,047.89
)	(-2.7)	(+1.0)	(-0.6)	(+1.6)	(-2.5)	(+2.5)	(-2.8)	(-3.6)	(-0.7)

주 : 1) 종가기준 2) 뉴욕시장 종가
 3) 외환은행고시 대고객 매매기준율(당일 최종고시가)
 4) ()내는 전월말(전월동일)대비 절상(+), 절하(-)율(%)

- 금년 1월말 현재 총대외채권은 1,876억 달러로 2001년 말 대비 257억 달러나 크게 증가하였고 총대외지불부담 규모 역시 단기외채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 1,323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2001년 말 대비 124억 달러나 증가
 - 순채권 규모는 1월말 현재 553억 달러로 2001년 말 대비 133억 달러 증가에 불과
 - 단기외채비중이 1998년 말 20% 수준까지 낮아졌었으나, 다시 상승세로 반전하여 금년 1월 말 38.3%까지 상승

단위 : 억 달러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연말	연말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1월말
총대외지불부담	1,363	1,199	1,195	1,258	1,298	1,310	1,323
장 기 외 채	921	810	783	781	769	812	816
단 기 외 채	442	389	412	477	529	498	507
(비 중)	(32.4)	(32.4)	(34.5)	(37.9)	(40.8)	(38.0)	(38.3)
총 대 외 채 권	1,669	1,619	1,649	1,714	1,758	1,853	1,876
순 채 권	306	420	454	455	460	543	553

자 료 : 재정경제부

제 2 장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1. 성장

세계경제 : 하반기 회복 예상, 그러나 본격적인 회복여부는 불확실

- IMF와 World Bank는 올해 3월에 이라크전쟁과 관련된 불확실성, 유가급등에 따른 소비·투자심리 위축을 이유로 성장률을 하향 전망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IMF	세계은행
세 계	4.7	1.2	1.7	3.2(3.7)	2.3(2.5)
선진국	3.8	0.8	1.4	1.9(2.5)	1.9(2.1)
미국	3.8	0.3	2.4	2.2(2.6)	2.5(2.6)
EURO	3.5	1.5	0.8	1.6(2.3)	1.4(1.8)
일본	2.4	0.3	0.3	0.8(0.5)	0.6(0.8)

주 : 괄호안은 2002년 9월과 12월에 예측한 수치임.

자 료 : World Bank ; Global Developments Finance 2003, 2003. 4

IMF ; World Economic Outlook, 2003. 4

- 그러나 전쟁의 사실상 조기종결로 국제유가 하락과 경제심리의 개선이 예상되면서 향

후 세계경제는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됨.

- 국제유가는 25달러내외로 하락했으며 향후 이라크 유정에 대한 개발 및 복구속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유가하락이 기대됨.
- 걸프전(91년 1월)이 개시되기 전에 미국 소비자신뢰지수는 55.1 수준으로 하락하였다가 3월중 종전기대감으로 47% 급등. 올 3월중 미국 소비자신뢰지수가 10년래 최저치인 62.5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그동안 전쟁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심리지표에 충분히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이미 예견된 전쟁이라는 점에서 향후 심리지표가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
- 그러나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지는 미지수
 - 이라크전쟁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으나 미국의 쌍둥이적자, 일본의 디플레이션, 유로지역의 경기부진 등 주요선진국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
 -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확산도 세계경제 회복에 악재가 될 가능성

미국 : 경기회복 예상되나 구조적 문제 상존으로 회복세 제약

- 2002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은 소비지출의 큰 폭의 둔화로 1.4%로 낮아짐.
- 2월 실업률(5.8%)은 8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으며 , 3월 소비자신뢰지수(62.5)도 93년 이후 최저치를 보임. 1~2월 주택경기도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이 기대되어 올해 약 2.5% 내외의 성장이 예상

- IMF, World Bank는 전쟁의 조기종결 가정하에서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이전 전망치(2002년 12월)로부터 0.3%p 하향조정한 2.2~2.5%로 전망
- 재정적자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회복세는 제한적일 가능성도 배제 못함.
- 무역수지와 재정수지 적자 문제 : 2002년 미국의 무역수적자규모는 GDP의 5%에 이르며 2002년 회계연도 재정수지적자는 GDP의 1.5%, 2003년 회계연도에 2.8%로 그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금리상승을 유발시켜 민간투자 구축 가능성이 있음.
- 블루칩 4월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전쟁이 조기에 종결된다 하더라도 향후 경제와 기업실적의 부진에 대한 불안감으로 올해성장률을 2.4%(3월 2.6%전망)로 하향전망

전망과 정책과제

단위 : 전기대비 (%)

	2001 년	2002년							2003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GDP성장률 ¹⁾	0.3	2.4	1.3 <2.2 >	4.0 <3.2 >	1.4 <2.9 >	-	-	-	-	-	-
산업생산	-3.5	-0.7	1.1	0.8	-0.7	-0.6	0.2	-0.4	0.7	0.1	-
개인소비지출	4.5	4.5	1.1	1.5	0.8	0.3	0.4	1.0	-0.1	0.0	-
소매판매액 (자동차제외)	3.8 (3.4)	3.4 (3.9)	1.0 (1.2)	1.6 (0.5)	0.4 (1.2)	0.1 (0.8)	0.6 (0.4)	2.0 (0.2)	-0.9 (1.3)	-1.6 (-1.0)	-
주택착공호수 ²⁾	160.3	171.1	166.7	169.7	175.6	166.0	176.1	184.7	185.0	162.2	-
신규주택판매	3.1	7.8	4.8	7.3	1.7	-5.2	3.4	4.1	-15.1	-8.1	-
기존주택판매	2.4	6.0	-3.8	-1.8	2.3	6.1	-2.3	4.8	3.0	-4.3	-
실업률	4.8	5.8	5.8	5.8	5.9	5.8	5.9	6.0	5.7	5.7	5.8
경기선행지수 ³⁾	108.6	111.0	111.1	110.8	111.0	110.5	111.1	111.3	111.5	111.1	-
소비자신뢰지수 ⁴⁾	106.6	96.6	108.4	95.2	81.7	79.6	84.9	80.7	78.8	64.8	62.5
ISM제조업 지수 ⁵⁾	43.9	52.4	54.4	50.6	51.8	49.7	50.5	55.2	53.9	50.5	46.2

주 : 1) 전기대비 연율, < >내는 전년동기대비 2) 연간환산치, 만호

3) Conference Board(1996=100) 4) Conference Board(1985=100) 5) 기준치=50

자 료 : 미 상무부, 노동부, 연준, 공급관리협회(ISM) 등

일본 : 2003년 완만한 경기회복 기조 유지

- 2002년 한해동안 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나타내어 매우 완만한 경기회복기조에 있음. 그러나 수출호조에 도 불구하고 소비의 둔화로 4/4분기에는 다시 둔화 조짐.
 - 1월에 5개월 만에 플러스로 반전된 산업생산지수가 2월에는 다시 감소
 - 2월 전국소비자물가지수는 1999년 10월 이래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2월 소매매출은 23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록.
- 일본정부(내각부)는 對中수출호조와 미국경제의 회복세에 따른 수출증가를 이유로 올해 0.5% 성장 전망. 이는 IMF의 전망치와 보다 낮은 수치임.

단위 : 전기대비(%)

	2001년	2002년							2003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2월
GDP성장률 ¹⁾	0.4	0.3	1.4 (-0.2)	0.8 (1.8)	0.5 (2.6)	-	-	-	-	
광 공 업 생 산 지 수	-7.8	-1.4	3.7	2.4	-1.1	-0.3	-1.6	-0.3	2.0	-1.7
민간기계수주	-5.8	-12.0	7.1	-1.7	0.3	-4.1	-0.2	5.2	7.0	-9.6
소매판매액*	-2.2	-3.9	-3.8	-3.6	-2.9	-3.0	-2.3	-3.4	-2.6	-0.2
CPI상승률 ²⁾	-0.7	-0.9	-0.9	-0.8	-0.5	-0.9	-0.8	-0.3	-0.4	-0.7
실업률	5.0	5.4	5.3	5.4	5.4	5.5	5.3	5.3	5.5	5.2
가계소비지출	-0.8	-0.2	1.3	1.7	-2.6	-0.7	-3.4	-3.5	-2.0	-1.6
수 출 ^{2) 3)}	-5.2	6.4	5.7	7.4	16.2	13.9	19.4	15.8	8.6	7.7
수 입 ^{2) 3)}	3.6	-0.6	-4.4	2.1	9.4	2.9	10.2	15.1	12.1	4.2

주 : 1) 전기대비 연율, ()내는 전년동기대비 2) 전년동기대비 3) 통관기준

자료 :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일본은행 등

유로지역 : 올해 내 회복 불투명할 전망

- 유로지역 경제는 실업률 상승, 기업들의 신규투자 지연, 소비지출 위축으로 성장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 2002년 4/4분기 중 유로지역의 성장률은 소비둔화, 수출의 급격한 감소로 전기대비 0.2%에 그쳐 3/4분기의 0.4%보다 둔화. 연간 성장률도 2001년(1.4%)보다 낮은 0.8% 기록.
 - 독일과 프랑스의 Ifo경기지수와 INSEE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EURO Zone의 3월 경기체감지수는 6년래 최저치 기록
- 조기종전이 되더라도 유로경제는 단기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워 올해 경기회복이 불투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IMF와 World Bank는 유로지역 경제는 올해 1.4~1.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유로집행위원회(EC)는 올해 성장을 1.8%에서 1.0%로 하향 수정전망(2003년 4월) 특히 1/4분기에는 마이너스로 하락해 경기침체가 올 수 있음을 경고

단위 : 전기대비(%)

	2001 년	2002년						2003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GDP성장률	1.4	0.8	0.3 (0.7)	0.4 (0.9)	0.2 (1.3)		-	-	-	-	
산업생산	0.2	-1.0	-0.9	-0.8	1.1	0.0	0.6	-1.6	1.1	-	-
소매판매 ¹⁾	1.4	0.4	0.1	0.7	-0.1	1.8	-0.8	-1.6	2.7	-	-
실업률	8.0	8.3	8.2	8.3	8.5	8.4	8.5	8.5	8.6	8.7	-
경기채감지수 ²⁾	100.8	99.0	99.4	98.9	98.6	98.8	98.4	98.6	98.2	98.4	97.8
PMI	47.8	49.8	51.4	50.4	49.0	49.1	49.4	48.4	49.3	50.1	48.4
Ifo경기지수	89.9	89.1	91.1	88.8	87.5	87.7	87.4	87.3	87.4	88.9	88.1
INSEE지수	101.6	96.6	100	97.7	96.0	93.0	96.0	99.0	97.0	97.0	94.0

주 : 1)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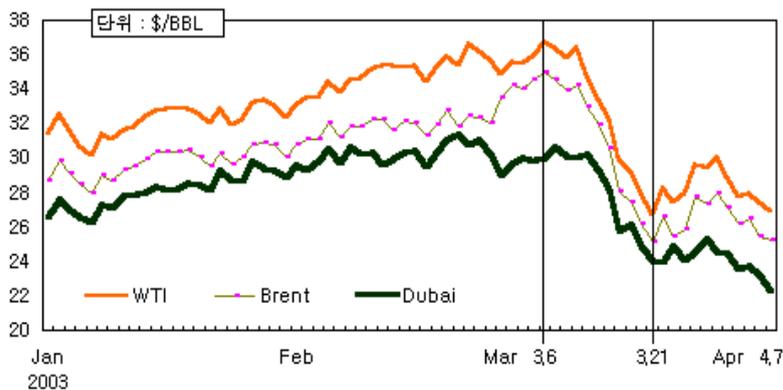
2) 1995=100

자 료 : ECB, Monthly Bulletin(2003. 3), EUROSTAT, Reuters

2. 국제유가

국제유가 : 2003년 하반기 이후 하향 안정세 전망

- 이라크전쟁 개전이후에는 조기종결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됨에 따라 국제현물유가는 하락세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개전전에는 배럴당 최고 36~37달러(WTI기준)에 달했던 국제유가가 전쟁개시후에는 약 37% 하락한 26달러 선에서 유지
 - 전쟁의 조기종결 기대감 확산 이외에도 3월 베네수엘라 원유생산의 정상화, 미국 상업원유재고의 증가 등이 추가 유가하락 요인
- 조기종전으로 올해 국제기준유가는 배럴당 25\$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또한 이라크 유정에 대한 복구속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하락 기대



3. 국제금리 및 환율

국제금리 : 경기회복 기대로 장기금리 상승세

- 미국·일본·EU 장·단기금리는 경기회복지연으로 하락세지속
 - 미국과 EU국가들은 주식시장의 침체와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채권수요가 증가하여 하락세가 지속
- 이라크전쟁의 조기종전, 미국과 EU의 금리인하기대로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금리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됨.

단위 :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연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7
단기 금리	미 국	6.399	1.881	1.380	1.686	1.425	1.380	1.350	1.340	1.279	1.290
	일 본	0.545	0.097	0.065	0.073	0.068	0.065	0.061	0.059	0.057	0.060
	유 로	4.854	3.300	2.861	3.256	3.044	2.861	2.805	2.530	2.520	2.528
장기 금리	미 국	5.12	5.03	3.81	3.93	4.21	3.81	3.97	3.69	3.80	3.98
	일 본	1.63	1.37	0.91	1.00	1.00	0.91	0.81	0.79	0.71	0.73
	유 로	4.85	5.00	4.20	4.51	4.49	4.20	4.07	3.92	4.04	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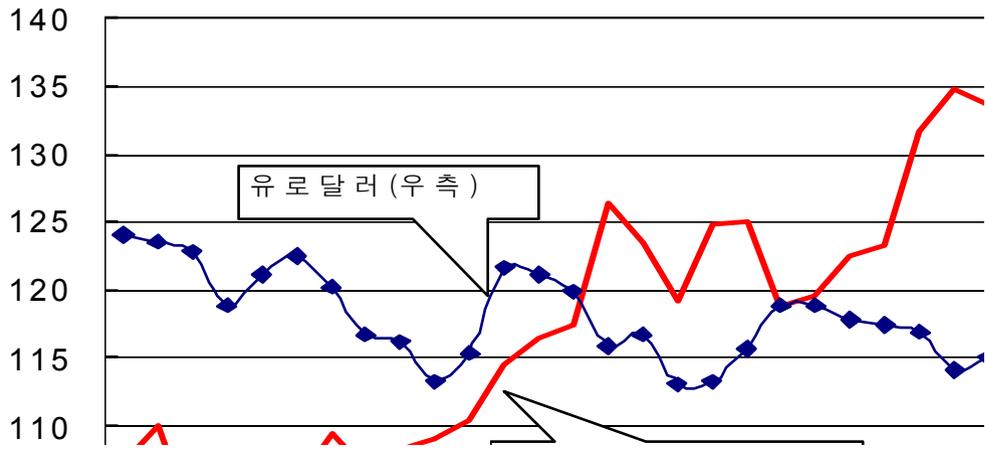
주 : 단기금리는 3개월물 리보금리이며, 장기금리는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을 사용.

단, 유로 장기금리는 독일 정부채금리임.

자 료 : ECB, Monthly Bulletin(2003. 4), BOK

환율 : 조기종전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약세 전망

- 달러화 혼조 : 엔화에 대해 소폭 강세, 그러나 유로화에 대해 약세
 - 2002년 3월말 엔달러와 유로달러는 119.82엔, 1.0777을 기록. 이는 작년말에 비해 엔화가치는 0.86% 하락한 반면, 유로화가치는 2.76% 상승한 것임.
 - 달러화의 약세는 이라크전쟁에 따른 불확실성과 미국의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감이 가세된 것에 기인
 - 엔화는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엔화가치의 하락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정부관료의 개입 의사로 인하여 소폭 약세를 보인 반면, 유로화의 경우에는 이라크 전쟁에 따른 유로화의 수요증대에 의해 강세를 보였음.
- 달러화는 조기종전에 따라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국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적자의 확대에 의하여 기초적인 측면에서 약세 불가피



제 3 장

국내경제전망

1. 실물부문

북핵문제가 지속될 경우, 올 해 성장 3%대 중반에 그칠 듯

- 이라크전과 북핵문제에 기인한 경제여건 악화로 올 해 경제성장은 작년수준을 크게 하회할 전망이다. 북핵문제가 하반기까지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성장률은 3.5%로 예상된다. 하지만 만약 북핵문제가 상반기 중에 가시적인 해소기미를 보인다면 성장률이 4%대 중반까지 높아질 수도 있음.
- 해외투자자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악화를 통하여 북핵문제가 국내경기에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음. 이는 해외투자자의 한국주식시장 이탈 및 FDI 감소, 환율불안 등으로 연결되고 국내 소비자와 기업들에게 미래 전망불안이라는 양태로 전파되어 경제심리 위축을 가져옴.
- 최종수요부문별로 살펴보면
 - 민간소비는 2002년(6.8%)보다 크게 둔화된 2.7% 증가가 전망되는데 이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및 가계신용 증가세 둔화, 부동산 및 주식가격 하락에 따른 역(逆)의 자산효과, 북핵문제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예상되기 때문

- 설비투자는 북핵문제, 신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투자심리 회복이 지연되면서 2001년에 이어 2년 만에 다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
- 건설투자는 상반기 중에는 지난 해 태풍피해 복구사업 지속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었으나 하반기에는 정부의 부동산 경기 안정화 정책기조의 영향으로 미약한 증가세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간 건설투자 증가율은 3%대의 낮은 증가세에 그칠 전망이다
- 성장의 내용을 보면 내수(소비와 투자)의 기여도가 전체 성장의 반에도 못 미치면서 올해에도 우리의 경제활동을 수출이 주도할 것으로 기대됨. 성장률이 3.1%로 떨어졌던 2001년에 비해서도 내수의 기여가 낮음. 이런 모습은 전망의 위험요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줌.
- 특히 최근 부각되고 있는 SARS 확산은 잠재적으로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 작년 부터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부상한 중국경제가 SARS의 확산으로 타격받을 경우 우리의 對中수출 역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임.
- 수출증가세가 예상보다 저조할 경우 실제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 있음. 즉, 해외경제 여건이 악화된다면 한국의 성장률은 본원의 예상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음.
- 반면 주요 선진국의 빠른 경기회복, 국내수요의 빠른 증가 등은 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임. 또한 만약 하반기 중 정부가 적극적인 부양노력을 통해 소비와 투자제고를 이루어낸다면 올해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음.
- 물론 상반기 중에 가시적인 북핵문제해소책이 나온다면 하반기 중 내수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전체 성장기여도도 높아질 것임. 연간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율은 2.7%

와 -1.4% 대신 각각 41%와 1.7%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2. 물가부문

고유가 여파로 4%대의 물가 상승 예상

- 작년 12월부터 올 3월 까지 급등한 유가는 수입물가, 생산자물가의 경로를 거쳐 소비자물가에 압력을 가하고 있음. 이라크전 종전과 더불어 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 물가상승압력이 낮아지겠으나 그 동안 발생한 물가상승요인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임. 따라서 올 해 중 물가상승률은 4%대에 이를 전망. 총수요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그 동안의 상승요인이 해소되면 물가는 점차 하향 안정될 것으로 기대됨.
- 생산자물가가 3월에 전년 동기대비 5.8% 상승하여 8개월째 지속적 상승세 기록. 이런 추세는 올 2/4분기까지 지속되어 연간 5%대 중반의 증가세 보일 전망
- 소비자물가 역시 3월에 4.5%(전년동기대비) 증가하면서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고유가 등 그 동안 발생한 물가 상승요인의 영향으로 연간 4%대의 증가가 예상됨.
- 북핵문제가 조기해소 될 경우 물가 상승률이 <표 21>의 경우보다 0.1~ 0.4%p 낮아질 수 있음. 이는 북핵문제해소에 따른 원화 환율의 하락이 수입물가를 낮춤으로 해서 국내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3. 대외거래부문

경상수지 소폭 흑자에 그칠 전망

- 1월 이후 수출과 수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3월까지 추세를 보면 수입 증가세(1~3월 30.7%)가 수출증가세(1~3월 21.5%)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고유가로 인한 원유수입부담 증가가 원인인데 수입증가세는 하반기부터 빠르게 떨어질 것으로 기대되어 하반기에는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 경상수지는 연간 약 13억불 흑자를 보일 전망
- 수출은 조기종전에 따른 선진국 경기의 회복전망과 對중국수출의 호조 지속 전망에 따라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선진국들의 수입규제, 반도체가격 회복 지연 등 불안요인으로 증가세 둔화 예상
- 수입은 상반기 중에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수출증가세를 크게 상회하는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 중에는 국제유가 하락과 내수부진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연간 증가율은 수출보다 높은 약 15% 예상
- 작년에 이어 대중수출이 큰 신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대미수출이 부진하고 최근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고율 상계관세 부과 등 수출의 지속증대에 부담이 되는 요인 존재. 또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중국 및 인접지역에서의 SARS 확산은 잠재적으로 우리 아시아권 수출 증가세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
- 아울러 이라크전 이후의 선진국 경제회복속도와 한국기업의 중동지역 재건사업 참여 정도 등의 변수도 우리의 대외거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그러나 대외거래부분은 북핵문제 지속여부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을 것으로 예상

4. 금융부문

금년 장기금리, 경제상황을 반영 현 수준으로 지속될 전망

- 금년 상반기 미·이라크 전쟁이 종결되어 경제 불투명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도 급속한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금년 장기금리는 현 수준으로 지속될 전망
 - 하반기로 가면서 경기회복이나 물가상승압력이 가시화될수록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금리는 소폭 상승을 보일 것이나, 미·이라크 전쟁 이후에도 당분간 각종 국내의 주요경제지표가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어느 정도 현 금리수준이 지속될 전망
 - 최근 공급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에도 불구하고 국내경기가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책금리를 크게 인상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오히려 경기부양을 위해 정책금리의 인하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
 - 장기금리는 점진적으로 소폭 상승하여 회사채 유통수익률기준으로 하반기에는 5.6%대에 이르러 연평균으로는 5.5%를 보일 전망

원/달러 환율, 금년도 점진적으로 상승하나 연평균으로는 작년 수준 예상

- 금년 원/달러환율은 지정학적 위험요인 등으로 인해 점진적인 상승 기조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나 연평균으로는 작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
 - 북핵문제 등의 전개방향, 달러화 약세 전환 및 지속 여부, 경상수지 흑자규모 축소, 국내기업에 대한 평가, 국내 증시의 외국인투자 변화 등이 원/달러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판단
 - 내수침체로 인한 경기둔화 상황에서 경상수지 흑자 폭이 대폭 축소되고 SK글로벌의 분식회계문제로 불거진 국내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가운데 북핵문제가 국제사회에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경우,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순매도와 함께 ‘안전한 자산으로의 이동’ 현상이 나타나 원화가치를 점진적으로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원/달러환율은 금년 중 북핵문제 등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여건이 반영되면서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지나 작년 수준인 연평균 1,249원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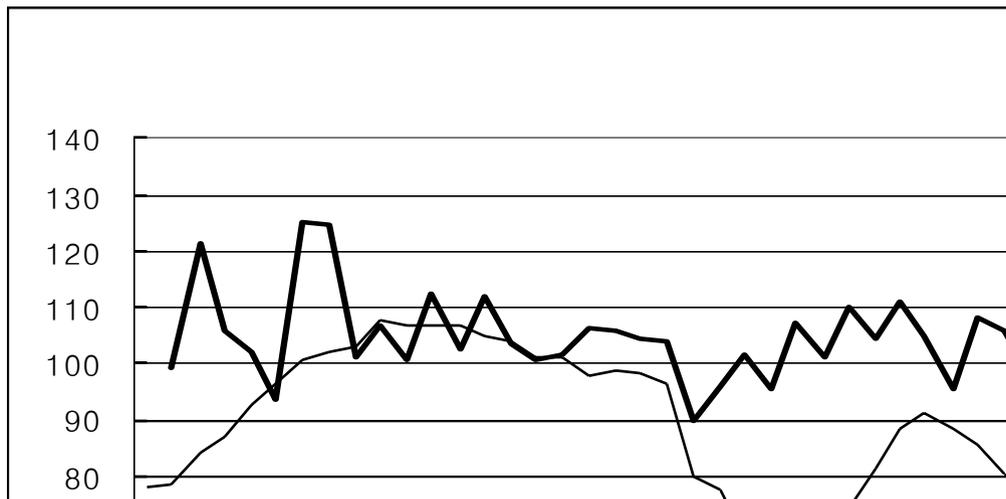
전망과 정책과제

	2002년 연간	2003년 (북핵문제 지속)				2003년 (북핵문제 해소)	
		1/4	2/4	3/4	4/4	연간	연간
국내 총생산	6.3	4.1	3.7	3.3	3.1	3.5	4.4
총소비	6.2	3.0	2.4	2.3	2.3	2.5	3.9
민간소비	6.8	3.2	2.5	2.4	2.5	2.7	4.1
고정자본형성	4.8	1.7	2.5	0.0	0.0	1.0	2.6
설비투자	6.8	-4.3	-0.8	-0.3	0.1	-1.4	1.7
건설투자	3.3	8.0	5.2	0.3	0.0	3.0	3.5
총수출	14.9	20.0	11.1	6.7	2.6	9.7	10.0
총수입	16.4	25.2	12.9	6.5	1.2	11.0	12.9
생산자 물가	1.6	5.4	5.6	5.1	4.4	5.1	4.7
소비자 물가	2.8	4.1	4.4	4.0	3.5	4.0	3.9
경상수지	60.9	-10.1	-10.7	11.6	22.3	13.2	-8.3
상품수지	141.8	15.5	19.4	28.9	38.0	101.8	82.4
수출	1625. 6	444.3	448.5	444.6	455.6	1793. 0	1805.8
증가율 (%)	7.5	23.3	10.5	8.7	1.1	10.3	11.1
수입	1483. 7	428.8	429.1	415.7	417.6	1691. 2	1723.4
증가율 (%)	7.7	30.3	18.5	9.1	1.4	14.0	16.1
서비스, 소득, 이전수 지	-80.4	-25.6	-30.1	-17.3	-15.6	-88.6	-90.7
원/달러환율(평균)	1251. 8	1200. 4	1252. 3	1266. 2	1277. 2	1249. 0	1226.5
회사채수익률(% ,평균)	6.6	5.4	5.5	5.5	5.6	5.5	5.7

제 4 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운동에 최우선

- 최근의 내수위축, 특히 소비 위축은 심각한 수준임. 2월 도·소매 판매하락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임. 소비자 평가지수가 최근과 비슷했던 2000년 말에 비해서도 소비감소 폭이 매우 큼.



- 이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결과임. 첫째는 신용카드 및 가계대출 기준강화에 따라 작년엔 비해 가계들에 대한 신용공여가 둔화되면서 ‘유동성 제약(liquidity constraint)’이 강화된 결과. 하지만 은행권의 가계대출증가세가 올 들어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어 유동성 제약의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보임.
- 두 번째는 가계들의 소득에 대한 불안을 반영하는 것임. 하지만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가계의 제일 중요한 근로소득이 떨어진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계심리지수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음. 그렇다면 현재의 소비위축은 미래의 기대소득에 대한 불안감 증폭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임. 통상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의 제일 중요한 원인은 미래의 ‘일자리 안전(job security)’에 대한 불안임.
- 심각한 지정학적 불안요인으로 인하여 향후 경기전망이 극히 불투명해진 것도 향후 소득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음. 이런 불안의 근저에는 향후 안정된 고용이 유지되겠는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음.
- 고용유지에 대한 불안감은 거시경제적으로는 향후 성장추세에 대한 우려에 바탕을 둠. 즉,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5 내지 6%의 실질 성장이 이루어져야 약 30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는데 이런 추세가 유지되겠는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성장에 대한 불안감은 미시적으로 보아 제일 중요한 사용자인 기업들의 전망에 대한 불투명성을 반영함. 즉, 과연 기업들이 과거와 같은 추세로 기업활동을 확장하여 고용수준을 유지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겠는가에 대한 불안에 기인. 이러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은 바로 투자부진임.
- 이렇게 보면 투자부진과 소비부진은 긴밀히 연결된 문제임.

- 경기 전망이 나빠질수록 기업활동을 저하시키는 각종 요인들이 고용창출이나 투자증대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심각하게 나타남. 이런 관점에서 경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함.
 - 이라크전 조기종전에 따른 대외여건 개선은 수출호조로 이어져 국내경기의 빠른 하락을 막아줄 것으로 기대되므로 거시정책은 상·하반기 모두 소극적 부양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고유가 해소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완화로 통화정책 활용여지가 커짐에 따라 필요시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음.
 - 하지만 그 동안 발생한 물가상승요인만으로도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물가안정목표를 상회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함.
 - 재정의 경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정의 상반기 조기집행은 소극적 경기방어책으로 볼 수 있는데 바람직함. 국내 실물경제회복 정도에 따라 필요시 추가 재정집행도 고려
- 재정이나 금리정책 등 거시정책과 더불어 기업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인세 인하는 최근 경기상황이나 중·장기적인 기업경영여건 개선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함. 아울러 수반되는 세수감소를 감안하여 전문직 자영업자 집단의 공정과세 등 공정한 조세부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시설투자 및 R&D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필요

- 이를 위해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상시제도로 전환하고 그 대신 적용범위를 첨단기술설비, 에너지절약설비, R&D 등으로 한정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부 록

주요경제통계

※ 주요경제통계 ※

연월	경제성장률		1인당 GNI	소비		투자		
	GDP	제조업		민간	정부	총고정투자	설비	건설
	전년동기대비(%)		US \$	전년동기대비 (%)				
2000년	9.3	15.9	9770	7.9	0.1	11.4	35.3	-4.1
2001년	3.1	2.1	9000	47	1.3	-1.8	-9.6	5.3
2002년	6.3	6.3	10013	68	2.9	4.8	6.8	3.3
2000년 2/4	10.2	17.1	-	97	0.2	13.2	42.6	-4.8
3/4	10.0	18.5	-	66	-0.7	10.9	32.3	-3.0
4/4	5.0	6.9	-	39	0.5	2.0	9.3	-2.7
2001년 1/4	3.8	4.6	-	1.9	0.6	-4.9	-9.7	1.0
2/4	3.0	2.5	-	44	1.0	-5.2	-11.0	0.1
3/4	2.1	-0.8	-	53	1.9	-2.5	-14.7	8.4
4/4	3.5	2.4	-	72	1.5	4.9	-2.2	10.0
2002년 1/4	6.2	4.2	-	89	5.3	6.6	3.8	9.7
2/4	6.6	6.6	-	7.9	4.4	5.4	7.5	3.8
3/4	5.8	5.5	-	62	1.5	0.5	7.8	-4.6
4/4	6.8	8.8	-	43	1.0	6.8	8.2	6.0

전망과 정책과제

연월	무역				국제수지		외환 보유액 ¹⁾ (기말)	대미환율 (기말)
	수출(FOB)		수입(CIF)		상품	경상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원/달러	
2000년	1,722.7	19.9	1,604.8	34.0	168.7	122.4	962.0	1,259.7
2001년	1,504.4	-12.7	1,411.0	-12.1	134.9	82.4	1,028.2	1,326.1
2002년	1,624.7	8.0	1,521.3	7.8	141.8	60.9	1,214.1	1,186.2
2002년 1월	113.8	-10.0	113.3	-8.9	6.6	2.6	1,043.0	1,314.8
2월	110.2	-17.5	104.7	-17.8	6.1	3.6	1,050.9	1,327.7
3월	132.5	-6.2	119.9	-7.4	18.5	9.7	1,060.9	1,325.9
4월	131.9	8.8	125.6	12.0	11.2	-0.9	1,076.6	1,294.0
5월	141.7	6.5	127.0	9.9	15.0	9.6	1,096.3	1,226.3
6월	128.9	-0.3	119.3	1.8	17.4	7.3	1,124.4	1,201.3
7월	134.0	17.6	130.3	17.3	7.1	0.8	1,155.0	1,188.0
8월	139.6	18.6	128.6	13.4	10.3	3.2	1,165.4	1,201.9
9월	139.0	11.7	129.9	10.9	10.9	5.3	1,166.9	1,227.8
10월	150.9	24.8	138.2	20.1	21.2	14.9	1,170.0	1,221.6
11월	152.0	23.1	139.9	21.3	13.6	11.2	1,183.3	1,208.8
12월	150.3	26.1	144.5	27.9	3.9	-6.5	1,214.1	1,186.2
2003년 1월	143.2	25.8	144.2	27.3	8.6	-3.5	1,229.1	1,170.1
2월	134.4	21.9	138.1	31.9	5.9	-0.2	1,239.9	1,193.7
3월	155.7	17.5	159.3	32.9	-	-	1,238.2	1,254.6

1) 가용외환보유액 기준

연월	물가 ²⁾		실업률 (계절조정)	제조업 명목임금	통화 ³⁾		회사채 수익률	주가지수 80.1.4=100
	생산자	소비자			신M2	M3		
	전년동기 대비(%)		(%)	전년동기 대비(%)		연%평균	기간평균	
2000년	20(1.7)	2.3(2.8)	4.1	8.6	22	5.6	9.35	734.2
2001년	1.9(-0.7)	4.1(3.2)	3.8	5.8	69	9.6	7.05	572.8
2002년	169(4.6)	2.7(3.7)	3.1	11.9	115	12.9	6.56	757.0
2002년 1월	-0.6	2.6	3.8(3.3)	-12.8	85	11.6	7.07	738.9
2월	-0.2	2.6	3.8(3.1)	28.6	88	11.9	6.89	774.4
3월	0.0	2.3	3.6(3.1)	11.2	11.1	12.9	7.05	864.7
4월	0.7	2.5	3.2(3.1)	9.9	123	13.7	7.20	894.0
5월	1.5	3.0	3.0(3.1)	13.0	124	13.7	7.07	842.2
6월	1.2	2.6	2.8(3.1)	9.4	125	13.5	6.76	784.3
7월	0.9	2.1	2.8(3.0)	15.2	115	13.0	6.59	753.7
8월	1.6	2.4	3.0(3.2)	9.8	107	12.4	6.23	713.2
9월	2.2	3.1	2.6(2.9)	10.8	106	12.4	6.06	703.2
10월	3.1	2.8	2.8(3.1)	15.4	116	12.5	6.01	642.2
11월	4.0	3.5	2.8(3.0)	11.1	133	13.7	5.90	679.7
12월	4.6	3.7	3.1(3.0)	22.8	141	13.3	5.88	699.8
2003년 1월	5.1	3.8	3.5(3.1)	-	139	13.1	5.48	631.0
2월	5.2	3.9	3.7(3.0)	-	133	12.6	5.25	591.6
3월	5.8	4.5	3.6(3.1)	-	-	-	5.44	550.8

주 : 2) ()는 전년 말월 대비증가율. 3)평잔기준

전망과 정책과제

연월	산업생산		수요 관련지표							
	전산업	평균 가동률 (%)	도소매 판매액	소비재 출하 ⁴⁾	국내기계 주수 ⁵⁾	설비투자 추계	건설 수주	건설 기성	건설	
									공공	민간
전년동기 대비(%)										
2000년	168	78.6	9.8	6.0	11.7	308	15.1	-3.1	-5.6	-1.5
2001년	18	75.1	4.6	2.9	-1.0	-23	22.1	10.0	4.4	14.6
2002년	73	76.9	6.0	8.0	21.0	16	21.3	3.7	-10.5	12.7
2002년 1월	144	76.9	7.2	16.6	27.9	82	29.9	6.0	-13.4	20.2
2월	-0.8	76.4	8.1	8.4	14.5	-26	37.2	14.1	6.8	19.3
3월	7.1	78.0	8.2	10.1	48.4	3.1	163.4	4.3	-4.7	7.8
4월	106	78.1	7.9	8.0	21.9	1.5	30.6	0.3	-10.8	6.3
5월	92	77.0	7.4	11.0	-13.3	3.9	2.3	-2.0	-15.8	7.3
6월	25	75.1	4.1	1.7	25.9	-5.4	2.6	8.2	-3.9	16.0
7월	93	76.9	6.6	6.1	12.2	-2.9	2.7	10.4	2.8	13.1
8월	68	76.8	5.9	8.5	43.2	1.1	54.0	-5.1	-20.1	3.9
9월	0.0	76.4	2.9	-0.9	5.0	3.4	-19.3	-10.8	-23.9	-2.0
10월	11.9	77.4	7.0	11.0	30.4	2.7	16.4	6.4	-13.2	18.3
11월	7.2	77.1	4.8	7.6	21.0	4.4	8.0	5.8	-16.4	20.9
12월	9.5	77.0	1.8	8.4	18.1	2.4	14.3	11.3	-4.4	23.7
2003년 1월	3.5	77.5	4.5	0.9	2.3	-7.7	20.9	20.9	10.7	25.9
2월	10.2	77.8	-1.8	-2.3	9.5	-4.0	44.0	9.0	-21.9	29.9

주 : 4)내수용 5)내수용, 선박제외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판1쇄 인쇄/2003년 4월 21일

1판1쇄 발행/2003년 4월 21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좌승희

편집인/허찬국

등록번호/제13-53

(150-75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대표)3771-0001 (직통) 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3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